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91호

서기 2004년 9월 15일
(음력 8월 2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 나 아님 없어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야로 한자리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근기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또 나로 인해서 내 근본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상응이 되고 직결돼서 모든 게 전달되고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겠으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때는 참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왔든지 온 것은 사실이고, 어떠한 문제를 가져왔든지 그것은 공부하는 데 전부 재료니깐 말입니다. 하여튼 장합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증생들을 제도를 해야 마지막에 내가 성불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모두 벌여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잘나왔냐에 여러분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분을 병고로 휘달리게도 하고, 애고도 나오고,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까지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것을 녹여야 된다는 것은 모든 거를 나오는 데다가 피뎠을 수 있다면, 안되는 것은 되게 마음을 내서 맡겨 놓고 또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 놓고, 이렇게 해야만 이 일체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참으로 근기가 약하면 산란해져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일일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맡겨 놓는다면 신경을 쓸 일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신적인 보살의 행은 모두 내 몸속에 있는 증생들부터 제도해야 마지막에 자기가 성불을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몸뚱이 속에 있는 세로 하나하나의 증생도 자기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잘피개끔 다스리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몸속에 있는 모든 증생들을 한데로 한마음으로 모아서 내가 마음 쓰는 대로 그것이 법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화신, 보신, 보현신입니다. 그 법신, 보신 이런 것으로 모든 증생들이 화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응신이 돼야,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성불을 한다는 겁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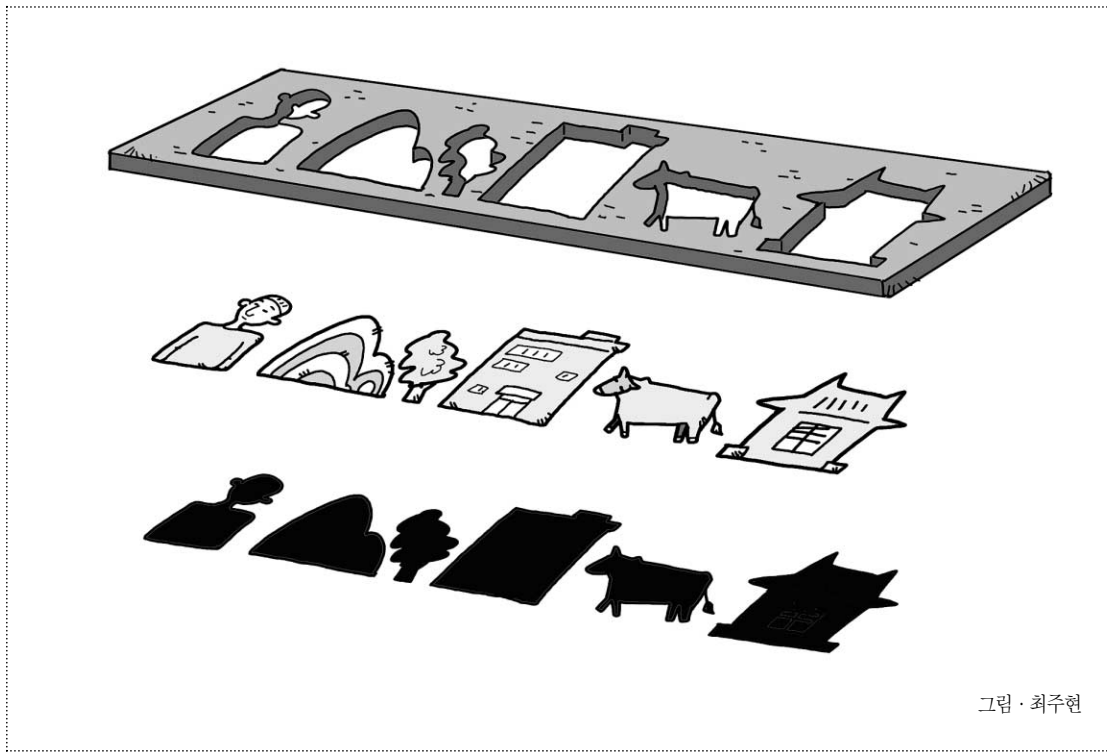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인 이 조그마한 육체와 같이 지구의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뒤죽박죽 돌아가는 거 같지만, 그래서 순서도 없고 뭐 아무 질서도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에너지를 돌이켜주는 시스템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세상 '아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 하지만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돼 있고, 한 대로 주어지게 돼 있고, 자기가 마음 쓰는 씬속에 의해서 주어지고, 마음 씬속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남을 때리면 맞아야 하고 사기를 쳤으면은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게, 지구의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혼란스러운 정맥 동맥이 인간에게 그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지구도 역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질서정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만이 우리의 생각대로 지구도 맞진 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작

파라서는 이 집중도 될 수 있고 저 집중도 될 수 있고, 이 꽃도 될 수 있고 저 나무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고, 물 하나가 그렇게 변해서 화하여 돌아옵니다.

그렇게 법이 변해서 나무가 됐다가 꽃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흙이 됐다가 허공이 됐다가 이렇게 조화를 부리는데 어떤 게 됐을 때에 이게 과학자가 지어놓은 이름이라고 하겠습니까? 약간 하더라도 물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만물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고, 만생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모두가 변통이 된다 이겁니다. 지구도 물의 일종이죠. 흙과 물, 불, 바람의 일종이죠. 사람만 그렇게 바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구도 그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천지조화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두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때에 과학자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또 아들이 될 때에 과학자가 "그건 아들이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남편이 될 때에 과학자가 "남편이다" 이럴 수가 있나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과학자들도 생각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말로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무(無)의 세계의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치를 어찌 말로 써놓을 수 있으며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며, 어찌 이거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한 것이 아버지, 남편, 아들, 사위 이런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걸 아시겠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증생들이 제각기 벌어진다면서, 즉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제각기 다른 운명 팔자를 못 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그걸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한근데로 모아서 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따르죠. 열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열구리에 작용하는 능능들에게, 바로 한마음이 되어 주고, 돌이 아닌 까닭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소소소를 진행해나가면서 모두를 하나로만 들을 수 있는 리드하는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모든 증생들도 다 리드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리드해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 말 자체가 법이 되고, 행 자체가 그대로 법이 된단 얘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증생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따라 배우고 나가는데 모든 것이 흡수해서, 팔자 운명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선악이 될 수도 있고, 둘 한방울이 됩니다. 때에

마음이 없어지고 그 의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만 의식으로 돌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보신으로서 응신으로서 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능히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 증생들이 다 제도가 돼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만이 마지막에 내가 천백억화신의 대표로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소립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동시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의 혼란이 그렇게 되고 계발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생길 때, 지구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태양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은하계의 별성들도 다 내 증생과, 내 몸속의 증생의 별성과 똑같이 이를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물론 자유자재한다고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이쁜 사람이 있으면 살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

나로 인해서 내 근본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상응이 되고 직결돼서 모든 게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대로 살리고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대로 살린다.' 하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다, 부처가 됐다 이러더라도 그 부처가 되기 이전에, 수억겁을 거치면서 공부하면서 나올 때에 된 것은 안 했겠습니까? 과거에 강도질을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어떻게 알니까? 그러나 몰랐을 때 내 모습, 잘못했을 때 내 모습, 내가 알기 이전에 몰랐을 때 내 모습으로만 모두 본다면 믿고 믿고가 따로 없죠. 지금 내가 배우고 가는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항상 자식들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자녀로서 한마음이 된다면 페단이 올 일이 없습니다. 부모한테는 부모한테로 들어가서 부모가 때버리면, 그 기준에 선다면 페단이 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항상 알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하면 년 밥 벌어먹는다.' 부모더러는 하는 말이 '당신네를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찌 한마음으로 이 우주 천하를 통일을 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말입니다.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차원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마음들은 본래부터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오다보니까 물질에 끄달리고 먹고 사는 데 끄달리고 애착에 끄달리고 육체에 끄달리고 모두 그러다보니까 잘못된 거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도 자기가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굴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알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고 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두 잘못되는 거를, 고통을 알아야 고통이 고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춥고 떨릴 때 뜨거운 열차를 한 잔 마셔 보십시오. 춥고 떨릴 때 말입니다. 열차를 마실 때에 뜨겁고 시원하고 그렇죠?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뜨거운 걸 모르면 시원한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고(苦)가 닥치고, 애고가 닥치고, 병고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재료로 삼아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리듯 '나는 인제 죽었다.' 하고 신경질을 내고 온통 이 야단들을 치면 몸 상하고 집안 망하고, 식구들이 전부 제각기 헤어집니다. 마음들이 많이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잘못됨으로써 식구가 다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병든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가난해 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에 끄달리지 맙시다. 모두가 이름에 끄달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정말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허, 나도 예전에 어떻게 몰랐었지? 허허,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진정코 애달고 애착됨고 그렇게 되지. '저길 몰라서, 저거 저렇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혜가 풍부해야 조건 없는 자비도 나오지 지혜가 풍부하지 못하면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행해야지, 말로만 행동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넓어질래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두세요. 저 산천초목의 모든 푸름들도 가만히 보세요. 제 이 파리가 저서 떨어지고 저서 떨어지는 것이 저름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도 망가뜨린다고 할 수도 없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물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마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 떠나서 제발할 수 없고 마음 떠나서는 원력을 세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 그 양면의 모든 거를 한근데서 나온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걸 어디까지나 허공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거와 같습니다. 땅에서 옳더라졌으면 땅을 짓고 일어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허우적거리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자기의 업식이면 딱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고를 떼면 데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이 지금 나오는 거지요.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하고, 듣는 것도 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가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증생들이 뒤죽박죽 사는 것 같지만 질서정연하고 조금도 에너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를 갔다 오는지 그걸 몸속의 증생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깐 내 마음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의식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또 지구 자체가 어디로 돌아

움을 잘하고, 행을 잘하고, 모든 것에 걸로 해결되게 논란을 부리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구에 어떠한 일이 생긴대도, 흙집이 났다고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썼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와 같습니다.

지구에서 벌어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 사는 증생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작용을 해줘야만이 지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주 천하 모두가 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 간단한 말이 실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내 몸 하나도 주체를 못하고 내 몸속에 있는 증생들도 제도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판국인데 어찌 지구의 뜻을 알겠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똑똑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학자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박쥐가 촉각을 일으켜서 모든 음파를 잘 통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닙니다. 모두를 가만히 보십시오. 물 한 방울이 때로는 정말 폭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악이 될 수도 있고, 둘 한방울이 됩니다. 때에

어떤 고풀가 닥치더라도 그걸 재료 삼아야

29면에서 계속

해야. 일하면서도 편안하고 서서 가다가도 편안하고 앉았는데도 편안하고 툽을 누도 편안하고 이래야 좌선입니다. 이게 좌선이자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고풀이 오는 것을 그 고풀만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 고풀이 어디서 온 것을 안다면, 아까 뜨거운 것을 알아야 시원한 것을 안다. 이랬죠. 그와 같이 그냥 시원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걸 모르니까 허우적거리기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법을 말한 건데, 관하는 거는 그냥 '주인공이 잘 해주시오!' 하고 말로만 이러하고는 거기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인간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이렇게 풀려서 돌아가는지, 운명 팔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안다면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것을 일러줘도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사람의 마음 근본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다' 이랬는데도 주인공을 믿고 놓을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그냥 '너 알아서, 너밖에 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는데, '해주시오' 해놓고는 그냥 바깥으로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속에서도 의식들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요. 나뭇가지를 갖다 여러 개를 모아서 놓으면 부러뜨릴래야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거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헤어지면 그냥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구분이 있듯이, 구분 없는 도리를 알아서 구분을 적절하게 정해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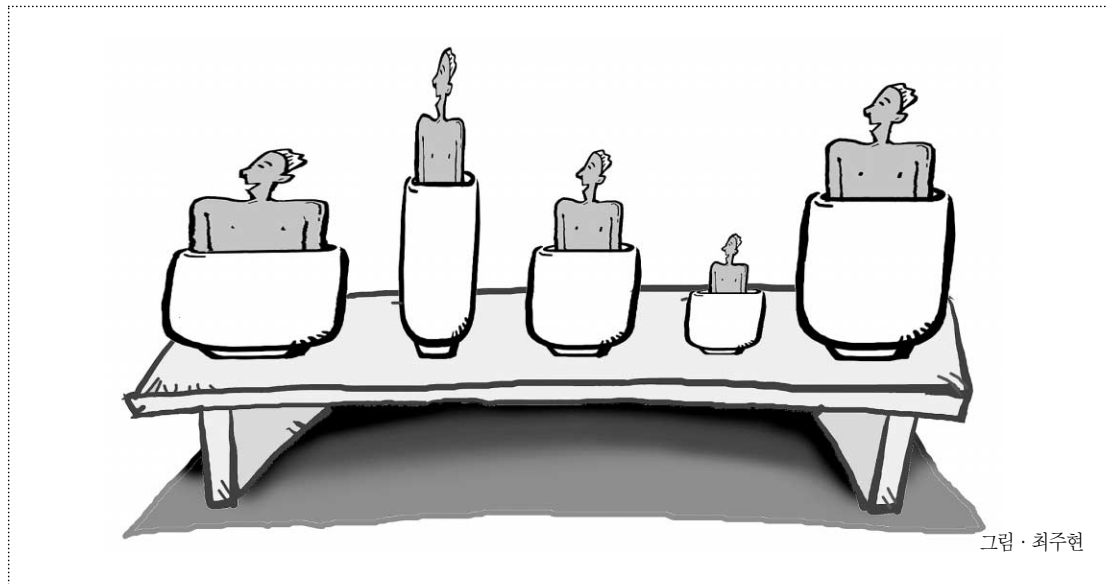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이 없이 책을 읽어서 말로만 "남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말은 한데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책에 있는 것이라도 이것이 쓸 만하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것을 만들려면 얼마만큼은 말없이 묵언하면서 그것을 골라서 진짜로 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남한테서 듣고서 좋랑,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말을 마구 해버리면 그거는 말 자체

라." 하고 이렇게 말들아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아하, 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서 다시 그와 똑같은 마음이 돼버린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니 거짓 말도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진짜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수궁이 간단하면 일체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이지 어떤 땐, 허허, 나야 답답할 게 없습디다마는, 나라고 한다면 답답할 게 없다 이거는 뭐냐? 모두가 나 아님이 없을 때 답답합니다. 나니까, 즉 나니까요! 각각 상대로 본다면 답답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상대성으로 보지를 않고, 즉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가 이렇게 나 아님이 없이 살고 있다 할 때는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허허,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러한 좋은 지혜로운 것을 전달을 하려면 둘이 아니게 전달이 되는데." 하고선 삼국이 웃습니다. 애초로써 때가 많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고 생각 안 할 때, 모두 부모가 돌아 가셔도 그렇고, 한 번 물어보신 분 계시죠? 아주 싫다고 물어도, 그건 자기로 인해서 우는 울이 8, 90%죠. 부모를 위해, 부모 생각을 하면서 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디다. 그분이 좀 더 살아줬으면, 더욱 고생을 해줬으면 하는 소리지, 하하하. 그저 자기 길러준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예까지도 갖다 말고요 아만법석이죠.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여튼 작은 두고 살지 마시다. 책을 두면

오려려 거리가 생기고 오려려 사랑을 할 수가 없 습니다. 책을 두지 않아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오래 살고 늙었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 은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 에 의해서, 판단을 잘하는 잘못한 그릇이 작든 크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애들을 나무라고 애들 을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무엇인지 알고, 정말 진짜로 뜨거운 사랑을 자식들도 할 수 있고 부모도 할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도 진실로써 내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아, 모자라는 것도 봐야 내가 모 자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바로 그 것도 내 스승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다못해 풀 한 포기 보고도 스승이라고 믿고 공부할 수 있습 니다. 지금 모두 스님들들 그렇고, 아만과 아상이 많아서 내가 나라는 거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가 알면은 얼마 나 아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비구니 비구는 모습 입니다. 모습! 화기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느냐 에 따라서 그림이 주어지죠. 그 그림에 의해서 말 입니다.

마음이라는 아주 영원한, 불생불멸할 수 있는 영혼의 근본 그 자체는 우주의 근본과 더불어 같 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에서 와서 물로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에서 와서 물을 따 라서 물줄기 가는 대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 제단 한 제단씩 말합니다. 지금 지구도 물주머니 속에 서 살고 있지요? 우리 역시 안 그런가요?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죠. 공기주 머니도 역시 물주머니나 한가지지 않아요.

이력하고도 그 영원한 길을 진짜 알지 못하고서 아 자신대서야, 알지 못하고 이 육신 옷을 벗는데서 아 어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 다. 그래도 인간으로 진화를 시켜서 이날까지 왔 는데, 끌고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칼을 뺐으 면은 뺐 대로 뺐 그 칼이 모두 나 아님이 없는 그 자체를 살리고 견지고 모두 둘이 아니게 하늘을 받힐 수 있는 그러한 도리를 행해야만이 되겠지 요. 여자 남자를 따지지 마시다. 근본은 둘이 아닌 까닭이죠. 하다못해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도 스 승 아닌 게 없는 걸로 알아야 할지언데 비구 비구 니 따지고, 속인 따지고 이런다면은 어찌 하나도

애고를 탄 데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헤로이 다스려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내 몸뚱이도 이 곱어갈 수 없다면 내 가정도 이 곱어갈 수 없고, 내 가정을 이 곱어갈 수 없다면 사회도 이 곱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리의 집도 다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지구는 우리의 몸뚱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마음과 생명의 근본, 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둘이 아닌 도 리를 알아야 지구의 집도 수명과 더불어 건강케 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거짓이

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건 오려려 남한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나한테도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 채 이견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 한다면 해보겠습니다. 동사끼리 말을 전했 을 때, 이 말을 전해서 좋을까 나쁠까를 잘 생각해 서 이익이 되게끔 다스려서 해야 하는데, 거짓말 을 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남한테 이익하게 하 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뭉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어도 "복전을 하시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진 게 지금 나오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진짜 사랑을 하려면 놔둬라. 부부기간에도 진짜 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사랑한다면 놔둬라. 불 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 러니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말 을 해드리는 데 이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바다가 되어 들어가는 물속에, 쉼 사이 없이 들어가는 그 물에, 눈물 한 방울이 눈에서 흘러내려서 두뼘두 뼘 바다로 흘러갑니다.

버릴 게 없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 말을 자주 하면 질문하실 분들이 못하시니까, 질문들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4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미음성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미음성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설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음질,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록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이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연액 밀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편이 쌓이고 관절 사이에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저하되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연액은 우리몸에서 자연 50여종의 아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스펀지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데로 대수술을 임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 효소)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시원기전 043-647-2376, 011-467-1472

영도 힘량

박미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사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쁨을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던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 조 하루, 18일 법회, 신중합리기도
031-736-3734 · 732-3790